

군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장기 전략 추진

상품권 사업 토대로 공공배달앱 2단계 사업

경제의 위기에서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 중인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전략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을 토대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장기 전략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사업이었던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군산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시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최근 음식배달시장에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군산시 공공배달앱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해 할인 혜택을 받고, 기존 배달앱을 사용했던 사업주들은 경제적 부담이 컸던 광고료와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려는 사업주는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군산사랑상품권사업과 연계해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사업주들의 혜택을 도울 방침이다.

군산시 공공배달앱은 지난달 30일 제안서 평가 등을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시스템 개발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시는 12명의 실무진(자문, 실무, 운영, 개발분야)을 구성하고 개발, 보안, 카테고리 구성 등 여러 협의와 자문을 거쳐 개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중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출시 계획인 배달앱은 소비자들이 기존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원하는 음식점을 주문·결제하고 소상공인들은 주문내역을 확인 후 조리·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사업자는 개발된 공공배달앱을 수수료없이 무상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비치된 기존 POS와 연동되는 시스템을 함께 개발 및 설치 해준다.

특히 소비자 민원사항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별도의 고객민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소비자와 사업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이 시민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공공배달앱을 통해 보다 더 편리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공공배달앱이 정착되면 골목상권 활성화 3단계 방안인 농수산물 등 지역 상품 온라인 통신판매 시스템으로 확대·개발하여 소상공인, 농어업인, 시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익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된 표지판 무료 교체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이행 여부 및 국산으로 위장 판매,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여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숙 위생과장은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 등 유통업체와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 및 국산 위장판매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속적인 사전 예방과 관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사전 주문

내달 6일까지 접수

군산시 농산물유통과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7일간 군산시청 직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사전주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주문 품목은 전국을 석권한 명품 군산쌀을 비롯해 장아찌, 흰쌀쌀보리, 한과, 호박보리된장, 어간장, 젓갈, 박대·조기, 꽃게장 등이며 행사 홍보와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산시 홈페이지, 읍면동, 단체 등 홍보를 하고 있다.

군산시 대표적인 우수 농특산물은 '울의 장아찌'로 박과의 덩굴식물인 울의를 솔지게미에 발효시켜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며 '흰쌀쌀보리'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더불어 별도로 불리거나 하지 않고 쌀과 함께 씻어 바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찰기

있고 식감이 우수한 식품이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지역 농특산물에 관심 있는 분은 농산물유통과(T.454-3043)에서 안내하고 있다.

군산시는 우리시 농특산물 이용 운동에 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이용함으로써 농가 및 가공업체 매출 증대뿐 아니라 농촌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는데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품질 좋은 명절 선물세트도 할인판매할 예정이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시민들이 먼저 인정하는 농수특산물로 만들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다문화이주민+센터' 인기

5개국 통·번역사, 체류·고용 등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익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족들의 교류와 소통 공간인 '다가온'도 운영을 시작하면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센터는 외국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익산역 4층에 마련된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익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물 한 곳에 익산시를 비롯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익산노동자의 집,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모두 16명의 직원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고용 허가, 통역 등의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체류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는 전주까지 가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 등 5개국 7명의 통·번역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고충상담 등을 병행해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편리함 덕분에 1일 평균 80명의 외국인들이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들의 교류·소

통공간인 '다가온'도 지난 7월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곳은 북카페와 정보검색실, 교육실, 휴식공간, 수유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조모임이나 자녀교육 및 상담,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일요일에도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농기센터, 여성농업인 교육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지난 12일부터 나포면생활개선회를 시작으로 여름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2019~2023)이 확정돼 시행됨에 따라 민선 7기 농업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여름철 교육에 맞춰 처음으로 기획된 민선7기 농업정책 교육은 의외로 농정의 핵심 내용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이해도가 높고 군산시 농정철학의 근간인 '따뜻한 자립농정'에 관심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여성농업인들 중심으로 한 농정 참여프로그램의 모색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사회복지장학회, 이웃사랑 실천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이사장 김기봉)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사회복지장학회는 회원연에 소재한 지체 장애인시설인 구세군목양원 원생들의 여름나기를 위한 물놀이 행사를 진행했다.

오세민 구세군 목양원 원장은 "장애 인부모회에서 구세군목양원으로 현재까지 20년을 넘게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기봉회장님과 장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제2회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회의

익산시가 오는 30일 제2회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시 자문기구로서 지난 5월 구성됐다.

시는 지난 2014년 모현우남아파트에 대한 대피명령 이후 주민 면담, 토론회 개최, LH와 협약, 도시재생사업 공모 등 여러 가지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주민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마땅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첫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원광대 윤충열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

출하여 그간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 정밀안전진단 시행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다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그간 개별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면담을 통해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제2회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이달 30일 개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남아파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좋은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며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